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아빠, 엄마 따라 우리도 응원 갈래요” 기별야구 10월 7일 팡파르

대표자회의서 확정

“황금 용마기는 우리 품에!” 용마가족 대망의 빅이벤트인 동창회장기 쟁탈 제33회 기별대항 야구대회(2001 부산)가 오는 10월 7일 개막, 열전 4주간의 레이스에 들어간다. 결승전은 11월 3일(토) 오후 경남고 운동장에서 벌어진다. ▶2면에 대진표

오전 10시 입장식·장타경기 첫대전 26회~31회·41회~42회

본부동창회는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남부민동 '효정초밥'에서 조대제 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 주재로 제33회 기별야구대회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정 대회규정 예산안 대진추첨 등 대회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사회: 최득호 사무국장·11회).

연합팀 전원엔 도시락 제공 모든 동문·가족 음료수 등

이 계획안에 따르면 대회는 10월 7일 오전 경남고 야구장에서 입장식을 거행하고 이어 장타대회와 연합A-B팀(제1~18회: A팀 흡수기·B팀 짝수기) 5회전 변의경기로 개막전을 장식한다.

대회 첫 경기는 오는 10월 13일(토) 오후 경남고에서 제26회-제31회, 경남중에서 제41회-제42회 격돌로 서전 테이프를 끊는다.

장타대회 출전대상은 재학시절 선수출신 동문을 제외한 모든 동문이며, 선배 순으로 1타석씩 기회가 주어진다. 장타를 날린 동문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대회본부는 입장식에 참석한 모든 동문·가족에게는 음료수와 맥주 등을, 연합팀 소속 동문에게는 도시락을 각각 제공한다.

단일팀 경우 중년부는 제19~24

회, 장년부는 제25~36회, 청년부는 제37~48회다.

재학시절 선수 출신 청·장년부 투수 제외

경기 규정은 △전 게임 토너먼트 낙다운제(폴드게임 없음) △단일팀 7회전(연장전 9회전까지) △핸디 2~3회 1점... 등 △청·장년부 경우 재학시절 선수 출신은 투수가 될 수 없다.

중년부 경우 재학시절 투·포수를 제외한 정규선수는 배터리를 할 수 있다.



올해로 서른 세 번째 맞은 기별대항야구대회는 오는 10월 7일 개막 팡파르를 울린다. 벌써부터 '우승고지'를 향한 각 팀의 집념이 불타고 있다. 사진은 대표자회의에 이어 열린 경총회 정기총회. 이창대 회장(정면 오른쪽)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기별야구 대대적 홍보

본부 慶總會 정기총회... 가족 적극참여 유도

본부동창회 총무단협의회(약칭 경총회·慶總會)는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남부민동 '효정초밥'에서 동창회장기쟁탈 제33회 기별대항야구대회 대표자회의에 이어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창대 회장(12회)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조직 활성화 및 유대강화, 본부동창회 각종 행사 적극 지원 등 기본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특히 총회는 오는 10월 7일 개막하는 기별대항야구대회가 동

문·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되게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무단은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이 끝나면 모교 체육관 옆 '학교공원'에서 동기회별로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많은 동문·가족들이 참여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학교와 협의, 재학생들의 응원전도 권유키로 했다.



화랑대기 모교 품에

모교(경남고)는 지난 7월 22일 부산 구덕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53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경기에서 부산고를 8-6으로 물리치고 4년 만에 대회 7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결승전 재경기는 대회 53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 21일에 치른 결승전 1차전은 연장 12회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9-9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진은 모교 선수들이 우승기를 받고 있는 모습 (6면에 관련기사).

김향운 (13회) 경남고 교장 취임 “진학을 향상·교육환경 확충 최선”

김향운 동문(13회·사진)이 지난 9월 1일 제16대 경남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20분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교직원 및 재학생과 조대제 동창회장(7회), 한병조 부회장(13회)을 비롯한 본부 임원 다수, 김경재(13회) 재경 동기회장 및 박영충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동기생 10여명 등 모두 1,8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전임 김성찬 교장(12회)은 지난 8월 말로 정년퇴임했다.

이날 김향운 신임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용마가족의 ‘마음의 고향’인 경남고가 미래를 준비하는 ‘향학의 전당’으로 거듭 나가게끔 열정을 쏟겠다”며 “재학생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환경의 확충, 인화단결을 앞세운 연구하는 교직원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평소 말수가 적은



가운데 매사를 묵묵히 술선수범하며 ‘인문고의 생명은 진학에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교

육자다.

특히 모교에서 6년 간(84년 3월~90년 2월) 후학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진학을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서울대 사범대(수학과)를 졸업한 이래 38년 간 교단을 지키고 있는 김 동문은 경남고를 비롯해 함림공고 삼천포제일고 부산남고 부산고교 부산상고에서 평교사로 활동했다.

또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원 연구사 및 중등과 장학사, 부산고 교감, 부산상고 및 문현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제20회 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부회장	김세준	김형오	김용민	김태선	한기완	황명환	현희수	허남균
강기철	강석근	김대원	김용철	동기회내 소클럽 회장	김태영	김조동	남기석	남경렬	
박병천	박재봉	심두수	장병호	(산우회 바둑회 골프회 야구회	박기상	박병관	박만옥	박용덕	총무
장상배	정규식	정영화	정용환	경의회)	박영학	박형준	배서호	박장대	장춘식
차상곤					송근호	손상수	송상헌	신원기	
	감사				신현석	오기현	우철성	유영걸	
동기회장 겸 동창회 부회장	김일석				유영덕	이갑현	이성근	이실근	
최장하					이정호	이종열	이전철	이천규	
	이사				이영오	이세형	장준기	장영훈	
	강두상	강현진	구영남	김두환	전일준	정승창	채경석	표문배	

〈동기회사무실〉
부산 중구 중앙동4가 53-30 팔성관광4층
051-441-6020

시평



김선동

제10회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전 부산남부교육청 교육장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와서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종래의 과도한 고교입시경쟁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장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논리에 기초하기보다 공교육영역에 시

으로 하고 재단 전입금을 학교에 많이 보내,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립운영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에 20여 개의 자립형 사립고 선발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 있다고 본다. 자립형 사립고교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학부모 계층간 격차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측에서는 과거의 명문 사립 학교 또는 외국처럼 귀족학교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파장

수 있도록 아울러 많은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에 초등, 2003년에 중학, 2004년에 고등학교 단계로 시·도별 1~2개씩 연구학교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생 선발권은 학교를 관영화해서 희망자 지원을 받아 이뤄지며, 교육과정 편성권 등 자율권은 학교에 주어진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주무장관이 6명이나 양산돼 정책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그렇다치고 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을 임명함으로써, 이 잘못된 출발이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상적 학교'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갈는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교육여건이 좋아졌다는 확신만 심어주고, 교육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고교평준화, 변화의 바람이

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지는 데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초·중등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책보고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고교' 시범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살려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의 등록금을 지금의 3배 수준

유명 사립고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며, 지방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건학이념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학교가 우선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배정해주는 학생을 받았지만, 이제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하는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으니, 잘하면 명문 사립으로 될

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6월 8일 '선진국형 공립학교'를 모델로 해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이상적 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가 재편성할 수 있고 학생의 성취기준, 적성, 흥미에 따른 공부와 체험을 연계하도록 했다. 또 교과지도와 인성교육 등에서 우수한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美 워싱턴·시카고서 온 '아름다운 동창애' 회보발송비 75만원 송금

화합과 결속이 촉진되고 있는 미국 워싱턴(회장 김영호·7회)과 시카고지역동창회(회장 유정호·16회)가 국내외에서는 처음으로 회보발송비 협찬금을 보내와 '더욱 알찬 회보' 제작에 격려가 되고 있다.

회보편집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과 시카고지역동창회는 해외 동문들에게 보내는 회보의 발송비가 많이 들 것이라며 각각 미화 100달러(한화 119,469원)와 500달러(한화 618,012원)를 보내왔다.

시카고의 유정호 회장은 최근 국제 전화를 통해 "국내외 용마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여주는 회보를 해외에 보낼 때 연간 많은 발송비가 든다고 들었다"며 "적

은 돈이지만 동문들의 정성으로 협찬금을 마련해 송금하니 회보 발송비로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대제 본부동창회장은 "회보발송비로 써달라며 송금한 것은 국내외에서 워싱턴과 시카고동창회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사무국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워싱턴의 박경배 총무(29회)는 국제전화에서 "용마가족은 물론이고 타교의 동문-가족들 사이에 '경남중고동창회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 회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다양하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소식과 이야기를 더욱 많이 게재해줄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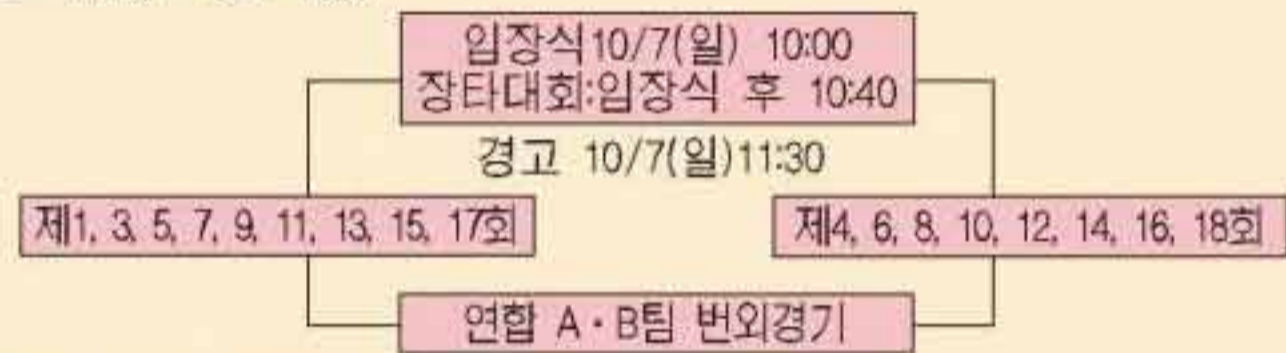
제21회동기회지 운영
www.kn21.or.kr

제 21회 동기회도 홈페이지 'www.kn21.or.kr'를 구축,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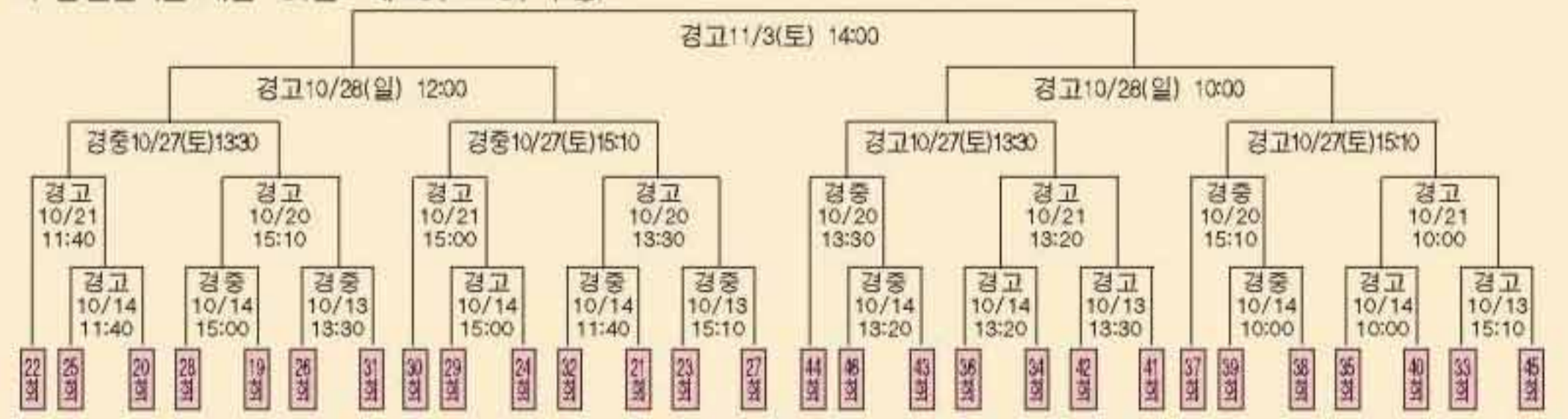
이에 대한 사용자 메뉴얼은 지난 8월 초에 배부했다. 홈페이지는 △게시판 △동기회조직 △동호회 △주소록 △지역동기회 △추천사이트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기쟁탈 제33회 기별야구대회(2001부산) 대진표

A) 연합팀 (1게임 5회전·제1회~18회 구성)



B) 단일팀 (전 게임 7회전·제19회~48회 구성)



프로야구계 명승부사 롯데 김명성 감독(19회) 별세



프로야구에서도 명장으로 손꼽힌 롯데 자이언츠 감독 김명성 동문(19회·사진)이 지난 7월 24일 오전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모교 재학시절 투-타에서

에이스로 활동했고, 실업에서는 한전과 육군팀에서 활약하면서 매년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68년 실업 야구대회 MVP·69년 방어율 1위·70년 다승 1위 등과 프로에서 롯데자이언츠 창단 코치·청보·태평양·삼성·LG코치를 맡았다.

그는 98년 6월 롯데 감독대행을 거쳐 같은 해 9월 정식 감독에 올랐다. 99년 롯데를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지난해 매직리그 2위로 끌어올렸다. 전적은 올해까지 통산 202승 204패 13무.

MBC 야구 해설위원인 허구연 동문(24회)은 "뛰어난 지도자를 잃어 가슴 아프다"며 "롯데중흥을 위해 늘 가슴 졸여온 온후하며 소탈한 선배"였다고 말했다.

제21회동기회 임원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최민석 최재권

본부동창회 이사
강수경 전기환 오거돈 송재영 송원경

고문
박상기 이문수 이재홍 이영훈 김병수
장 호 이승현 성윤수 임경범 전기환

회장
오거돈

수석부회장
강수경

부회장
서덕수 이재화

협의부회장
강창수 김한규 송재영 안채식 윤승근
이재호 전우성 정영천 최수명 이강남

이사
강민우 강순석 강영도 권영순 권용호

권재진 김경복 김기현 김동우 김부곤
김원달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헌일 김황세 민한식 박명문 박봉현
박성열 박순양 박자민 박재선 배영일
배 일 변성인 성정근 손원조 송재식
송태형 신금봉 신남석 여환부 오익희
옥영철 우종득 윤상철 이세형 이익규
이인백 이일상 이재택 이종하 이혁
전광수 정익주 조호제 최금구 최낙환
최정림 최재봉 최현두 최희춘 한수민
한인환 허영도 황동규 황영실

감사
변창섭 임경범

총무
조현영 권오균

재경동기회 회장 박명옥
재경동기회 총무 홍순길
마창지역동기회 회장 조호제
마창지역동기회 총무 김현기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박일승

본부동창회 올해 9~12월 주요행사 계획안 확정 용마의 밤 12월 14일 롯데호텔서

본부동창회는 지난 상반기 중 치러진 신년회를 비롯, 테니스 낚시 등산 바둑대회와 홈커밍데이 행사(제15, 25, 35회) 등 빅이벤트를 통해 용마가족의 역량결집을 도모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본부동창회는 하반기에도 전통의 제33회 기별야구대회와 용마의 밤 행사 등을 추진, 화합과 결속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본부동창회 9~12월 주요행사는 다음 별표와 같다.

행 사	일 정	장 소
기별야구대표자회의	9월 14일 19:00	효정초밥(송도 유엔호텔 옆)
경총회 정기총회	9월 14일 19:00	효정초밥(송도 유엔호텔 옆)
본부임원 회의	9월 21일 18:30	대어초밥(조방 앞)
제33회 기별야구대회	10월 7일(입장식) 10:00	경남고 운동장
제4회 용마골프대회	추후 발표	추후 발표
제경동창회 정기총회	11월 11일 10:00	올림픽공원 3체육관(잠실)
본부 3차 이사회	11월 16일 18:30	추후 통보
용마장학회 이사회	11월 23일 18:30	대어초밥(조방 앞)
용마의 밤 축제	12월 14일 18:3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해외 동문 4명에 감사패 제15회, 홈커밍참석 처하
제15회동기회(회장 정창환)는 미국과 중국에서 활약하던 중 지난 5월 12일 거행된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행사에 참석한 강길연(중국) 마동명 송빈소 이상모(이상 미국) 동문에게 '전체 동기생의 고맙다는 마음'을 새긴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29회, 부산서 '경부체육대회'

가족동반 100여명 참석... 골프·야구로 우정 확인

제29회동기회 부산-서울 가족동반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7일 부산에서 열려 역량결집을 과시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날 행사에는 부산에서 50여 명, 서울-울산 등 지역에서 50여 명 등 모두 100여 명이 모여 골프와 야구로 우정을 확인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6개조 24명이 오전 6시 경남 양산시 근교 통도사아도니스C.C에서 티업, 마지막 봄의 그린을 수놓았는데 박성재 동문(명지대 교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야구대회는 오후 12시30분 모교 경남중 운동장에서 열려 부산팀이 서울팀을 15-8로 가볍게 따돌렸다.

뜨거운 응원 속에 치러진 골프와 야구대회에 이어 동문-가족들은 경남중 근처 '암소숯불갈비'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정유성 본부동기회회장(신진택시 사장)은 단합회 인사말을 통해 "승부를 초월한 경기를 통해 더



제29회 동문-가족들이 야구경기를 끝낸 후 단합회에 가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욱 응집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한승경 서울회장(한승경피부과 의원장)은 답사를 통해 "부산의 동문-가족이 베풀어주는 따뜻한 정에 감사를 드린다. 서울대회 때 빛을 꼭 갚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부친선체육대회'는 내년부터 매년 서울-부산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권두진 총무(태원 사장)와 서울의 어진우 총무(단국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친밀한 협의 속에 헌신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동문-가족들은 두 총무와 서울팀을 위해 버스를 제공한 정기조 동문(중앙대 야구감독)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격려했다.

'미기고(食) 우끼고(笑) 쟁기고(宿) ...' 제16회 여름캠프 재미 두배

"오 이소 (Come)! 하이 소 (Play)! 노이소(Enjoy)!"

제16회동기회 '2001 여름캠프'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이번 캠프에는 부산을 비롯, 서울 대구 마산 밀양 등 동문-가족 70여 명이 참여(3일 간 연 인원 120여 명 추산)해 친교와 우정을 굳게 다졌다.

윤영식 동기회장은 27일 전야제 인사말에서 "전통의 여름캠프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아끼며 돕는 16회의 저력을 더욱 과시하자"고 말했다.

동문-가족들은 싱싱한 도다리회와 소라 왕장구 명기 해삼 등 해산물에 '고향의 참맛'을 만끽했고, 캠프파이어로 결속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변용현 여름캠프 단장·강종국 동기회 사

무국장·육윤석 동기회 고문 등이론 바 '변강옥(변강쇠보다 강도가 더 높다고 우깁)'의 지극정성(?) 봉사과 윤영식(부산) 허종욱(서울) 회장 등의 협찬을 바탕으로 일행은 '미기고(食) 우끼고(笑) 쟁기고(宿)'하는 데 최선을 다해 시원함과 즐거움이 두 배가 되었다.

동문-가족들은 서고명·육윤석 동문이 낚아 오린 북매운탕 등으로 숙취를 풀었고, 제27회 후배들이 선사한 5박스의 술로 얼큰해

지기도 했다. 또 더러는 등나무 아래 평상에서 바둑(판 4세트)을 즐기거나 각종 실내오락기구로 심신을 다졌으며, 지하 139m에서 퍼올린 얼음물 같은 지하수로 등물치기를 하는 등 쓸쓸한 재미에 쏙 빠졌다.

한편 테너 정 광 동문(대구)은 해변에서 '산타루치아'를 열창, 수많은 해녀들과 피서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70여 명 사흘간 피서 '변강옥 지극정성(?)봉사 생선회·북매운탕 등 인기



지리산 중산리 계곡서 열린 제25회 여름수련회에서 천왕봉에 오른 동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리산 계곡에 '친교의보석' 일일이

한여름 지리산 계곡은 용마가족들의 건강한 웃음과 덕담과 격려로 가득했다.

제25회동기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서 동문-가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름수련회'를 베풀었다.

이들 용마가족은 멀리 전남 목포와 여수에서도 달려왔고 진주에서는 '전원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예상을 갠 참석 덕분에 지리산 산신령(?)으로부터 귀움을 받았다. 더구나 국회의원인 박종웅 동문은 바쁜 의정활동을 제쳐놓은 채 밤 12시30분에 도착

하는 열성을 보여 술상을 다시 차리기까지 했다.

한마음이 된 동문-가족들은 행사 첫 날 밤 별빛 쏟아지는 계곡에 둘러앉아 추억을 쌓았고, 반가운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우정을 쟁기고 또 쟁겼다.

제25회 여름수련회 대성황 30여명은 천왕봉 등정에 나머지 30여명 역사탐방

행사 이튿날인 19일에는 30여 명이 새벽부터 안개비를 맞으며 천왕봉 등정에 올랐는데, 김태선 '1일산행대장'의 알뜰한 리더로 장장 7시간 동안 산행을 하고도 낙오자 한 명 없는 실력으로 베이스캠프에 돌아왔다.

이날 천왕봉 등정대와는 달리 나머지 30여 명은 △성철스님 생가를 복원해 마련한 '집의사' △남명 조식 선생 유적지 △문의점 목화 시배지 △빨치산 유적지 등을 관광,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유적'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만끽했다.

제25회동기회 임원 명단

- 고 문**
 朴鍾雄 국회의원
 林武弘 대양교역 대표
 文在寅 변호사
 朴鍾賢 제이텍 대표
 宋永根 비원레프츠 대표
 辛聖基 타워무역 대표
 吳相憲 부산대 교수
 李水榮 치과 원장
 鄭允哲
 崔東河 진영금속 대표
 崔炳壽 대양수산 대표
 崔仁德
 韓憲教
 徐秉洙 해운대구청장
 金鍾喆 DSI 대표
 曹鍾賢 삼한기연 대표
 金圭珍 우주전자 대표
 康爽哲 동서대 재단사무국장
 曹晃道 외환은행 지점장

- 회 장**
 諸樂成 내과 원장
- 부회장**
 梁承旭 김해성모병원 부원장
 李明哲 경성대 교수
 李正仲 한의원 원장
 李相和 상도공업사 대표
 林相澤 신세기통신 대리점 대표
 李大羽 한의원 원장
 金吉守 목천화원 대표
 全圭煥 제일투자신탁증권 지점장
 楊孟準 김해공항 문화재 감정관
 金大憲 내과 원장
 金俊鎬 신경정신과 원장
 金鍾佑 자모병원 원장
 金鍾賢 SKT상사 대표
 金昌郁 내과 원장
 鄭樹城 대성상사 대표
 許澤 치과 원장

- 太明山 내과 원장
 孫基千 인제약국 대표
 黃浩善 부경대 교수
 金 鈴 삼도종합건축사 소장
- 이 사**
 鄭鎮決 약국 대표
 鄭信培 영신스포츠센터 대표
 丁東雲 유림관농원 대표
 趙京一 안과 원장
 李聖浩 부산대 교수
 李龍根 내과 원장
 林昌雲 피부과 원장
 韓榮根 기업은행 지점장
 威健柱 남산내과 과장
 金東宰 부산은행 지점장
 李徐徹 외환은행 지점장
 金秀國 상능기업 이사
 姜龍珠 법무사
 법무사
 郭光植 효성종합건설 상무
 金德佑 태평양감정 소장
 裴東明 부경대 교수

- 白承翊 연합칠강 차장
 徐保民 약국 대표
 全容奎 한의원 원장
 林進相 약국 대표
 裴錫千 경동공업 상무
 尹鍾烈 동주산업 상무
 李海龍 약국 대표
 崔煥澤 서릉 상무
 許萬澤 부경대 교수
 權太勇 WIZ사무기 대표
 李漢植 건축사사무소 대표
 金鍾滿 현대자동차 동래지점장
 金昌浩 부산대 교수
 盧台鎬 약국 대표
 金大羽 PIPA 대표
 朴元珪 약국 대표
 全永勳 소아과 원장
 金銅鎭 울산병원 원장
 韓俊錫 창원농협공판장 대표
 全尙泰 부동산 대표
 朴德培 약국 대표
 朴董宰 약국 대표
 成良出 울산경찰청

- 감 사**
 金相守
- 총 무**
 玉東薰 余聖祚 崔東河
- 제경동기회**
 회장 朴永安 태영상선 대표
 총무 姜雲中 제서 대표
- 울산동기회**
 회장 朴東健 신경정신과 원장
 총무 孫秀一 울산석유화학단 지협의회 부장
- 마창동기회**
 회장 趙良濟 한국중공업 팀장
 총무 李相熙 우리정보기술 대표
- 취미서클**
 25산우회 회장 文在寅
 25골프회 회장 崔炳壽
 25테니스회 회장 李明哲
 25기우회 회장 李相和
 25낚시회 회장 辛聖基

김뇌명 동문(15회·사진)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재임 중 최근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발탁됐다.

**김뇌명(15회)
기아자동차 사장 발탁**



러나고 늦게 올라가면 늦게 물러난다(早進早退 遲進遲退-조지조퇴 지진지퇴)라는 이 말을 자신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부하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외국 바이어들에게 'Roy' 'No'로 통하는 김 동문은 자동차업계로부터 최고의 해외영업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그룹 공채출신인 김 동문은 입사 후 국내영업지원과 기획실에서의 5년 간을 빼고 30년 가

카이 해외사업 부서에서 잔뼈가 굵았다. 사내 영어시험에서는 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영어회화가 유창해 큰 덕을 봤다.

'일찍 올라가면(출세) 일찍 물러나고 늦게 올라가면 늦게 물러난다(早進早退 遲進遲退-조지조퇴 지진지퇴)라는 이 말을 자신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부하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살아있다면 84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모습?..."

김형구(27회) 국내외 유명인사 초상화전

서양화가 김형구 동문(27회·작은 사진)은 생존하고 있다면 올해 84세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케네디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전직 대통령들과 20세기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려내 화제다.

특히 김 동문은 사진이 없었던 시대의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위시해 김 동문 자신의 노후 및 사망 직후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또 섹스심벌 마릴린 먼로는 76세의 불품 없는 늙은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루복 차림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72년 테러를 당했던 당시 손에 붕대를 감은 상반신 모습으로 화폭에 담겨졌다.

그리고 엘친·차범근·손 코너리·클린턴·등소평·손기정·이병철·정주영·김 동문의 아버지(강우영·전 대법관)의 얼굴도 사진과 다를 바 없다.

이 초상화들은 모두 200호(193×264cm) 또는 120호 크기의 대작들인데, 김 동문은 비디오 영상을 정지화면으로 출력한 후 피부노화 정도를 고려해 극사실기법으로 재구성했다.

중앙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한때 서울 동숭동에서 화랑(나우갤러리)을 경영했던 김 동문은 이들 초상화 작품 80



여점으로 첫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동문은 최근 헤비메트 특별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200호 크기의 대형 초상화 작품을 기증한 바 있다. 한국 헤비메트 정근모 이사장의 제의로 두 달 동안 제작된 이 작품은 미국의 지미 카터 기념관에서 전시된다.

**신일규(22회)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단장**

신일규 동문(22회·사진)은 현대모비스(주) 경영지원본부장 재임 중 지난 9월 5일 이 회사 프로농구단의 초대 단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신 동문은 현대모비스(주) 전무이사와 카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무(26회)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무 동문(26회·사진)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 재임 중 최근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과정(교육학)을 각각 수료했다.

이 동문은 행정고시(19회)에 합격한 후 교육부 장관 비서관·청와대 교육비서실·부경대 사무국장·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국장·교육정책기획관·공보관 등을 지냈다.

**하영제(27회)
'훈맥문학' 신인상 수상**

하영제 동문(27회·진주시 부시장·사진)은 최근 '훈맥문학'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했다. 행정학 박사인 하 동문이 이번에 수상한 신인상의 작품은 수필 '사친곡(思親曲)'과 '고향의 장터' 등 2편이다. '훈맥문학' 8월호에 게재된 하

동문의 수필 2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에서는 영혼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없이 필력이다"고 평했다.

**이준성(30회)
부천시세무서장 발탁**

이준성 동문(30회·사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장 재임 중 지난 8월 27일 부천시세무서장에 취임했다.

부산대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대전 청주 해운대 중부산 등에서 총무 법인 재산 등 과장을 지냈다.

또 부산지방청 조사 1담당관 및 감사관, 밀양 울산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포커스

**중견연극배우 박용수(29회)
재공연 막올린 '가시고기'
새 아버지역 맡아 각광**

중견 연극배우 박용수 동문(29회·사진)이 지난 8월 10일 산울림 소극장에서 재공연의 막을 올린 연극 '가시고기'의 새 아버지 정호연 역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시고기'는 이혼한 홀아비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려고 고생하다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줄거리다.

서울대 총연극회 출신으로 성악을 전공한 박 동문은 지난 3~6월 공연돼 중견 관객을 많이 울렸던 '가시고기'의 대본을 받고 "나라도 백혈병에 걸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臟器)까지 팔 수 있을 것"이라며 엄청난



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정호연 역을 맡은 박 동문은 이번 재공연에 앞서 주요 배역이 대폭 풀갈이 됨에 따라 초연 때의 안석환 대신 캐스팅됐고, 아들 다음 역도 이동근에서 정사랑(13·서울남성초등학교 6년)으로 바뀌었다.

박 동문은 이 작품 연출을 맡은 산울림 극단-극장 대표 엄영웅씨와 지난 1990 사뮈엘 배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포조역)'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만나 숨결을 고르고 있다.

**장의구(17회)
이니언기획·조양에스코 대표**

장의구 동문(17회·사진)은 최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인 '이니언기획'과 에너지 절약시스템 판매 회사인 '조양에스코'의 대표로 취임했다.

경남 창원시를 거점으로 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장 동문은 경남신문 정경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과 국민일보 영남취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산업자원부가 인정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인 '이니언기획'은 중소기업 및 농어업 관련 제품 디자인·홈페이지 구축·카탈로그 제작 등을 맡고 있다(포장재 디자인 경우 정부가 디자인 개발비 70% 지원).

'조양에스코'는 페타이어를 공해 발생 없이 녹여 분출된 가스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판매회사다.

※회사: (055)255-1954~5, 핸드폰: 011-9530-6629.

클릭

**안 풍(28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안 풍 동문(28회·인쇄마당 대표·사진)은 지난 6월 2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안 동문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2일 제18차 회의를 통해 관련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함으로써 이뤄졌다.



안 동문은 △대학 1학년 때인 74년 10월 박정희 정권 항거 시위 주동으로 구속, 제적됐고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후 10·26사태 하루 전날 시위 주동으로 구금됐으며 △80년 '서울의 봄'기간 중 서울지역 대학연합체 결성 및 5월 15일 서울역 시위 주동으로 다시 제적되는 등 한창 꽃필 나이에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다.

제27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 공민배 창원시장
- 김경중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박명준 세가골프 대표
- 옥명훈 국부사 대표
- 임기대 고려실업 대표
- 장기남 한미실업 대표
- 장창조 부산시 시의원
- 김태우 국제 법무법인 대표
- 김용태 일월상공사 전무
- 김달호 정인한의원 원장
- 한명철 한명철 변호사

직전회장

문두찬 문두찬피부과 원장

회장

이판세 (주)PSG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박찬석 박찬석치과 원장

부회장

- 장인철 장치과 원장
- 김지원 창신산업(주) 대표
- 김원대 해창한의원 원장
- 김병호 현대자동차 부속병원
- 이봉춘 남산내과 원장
- 정광모 영진상사 대표
- 정민화 정내과 원장
- 송인무 송인무이비인후과 원장
- 이승훈 부산유조선 전무
- 임용한 임치과 원장
- 전창민 성심의원 원장
- 김석운 예진섬유(주) 전무
- 백승엽 영진레이저 대표

감사

박현호 부산은행 본점 전략기획팀장
허한 (주)동방박사 해운대지점 대표

수석총무

김경진 영진빌딩.에덴블링장 전무

총무

강봉호 삼성화재보험

이사

- 강영건 강주훈 강승호 공기업 권명보
- 권순홍 김근우 김대룡 김대영 김도상
- 김상중 김안식 김정희 김지연 김황열
- 류성모 박규욱 박상훈 윤지한 이상열
- 이인규 이태주 이현 이형복 정형찬
- 박진우 박치호 방명수 배재홍 신해진

조민제 조봉관 조영일 조용수 최경룡
최명권 최희진 김용섭

본부동창회 부회장 윤정환

본부동창회 감사 김태우

본부동창회 이사

문두찬 이철 박찬석 이판세

등산회 회장 장기남

기우회 회장 김태우

총무 강봉호

총무 윤지한

골프회 회장 윤정환

남, 수, 기, 해운대지회장 강봉호

총무 허한

영, 중, 서, 강, 사하구지회장 양태중

총무 윤지한

연제, 동래, 북구지회장 이봉춘

총무 정광모

동, 북구, 부산진지회장 문두찬

나오연(6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연 동문(6회·국회의원·사진)은 최근 한나라당 몫인 국회 재정위원장에 선임됐다. 3선 의원(경남 양산)인 나 동문은 부산대를 졸업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 세정차관보 등을 지냈다.

지난 제14대 총선에 출마, 당선돼 의정 단상에 처음 진출한 이래 제15, 16대에 걸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국회 재정통인 나 동문은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제2 경제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나라당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손성근(17회)
동아의료원장 취임



손성근 동문(17회·사진)은 동아대의 대학장 재임 중 9월 1일 제 5대 동아의료

원장에 취임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손 동문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동아대병원 기획조정실장·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동아대의대학장 등을 지냈다.

내년 2월 성지순례 추진

제21회 신우회 수련회
목회자·성도 부부 19명 참석

제21회동기회 신우회(기독교 목회자 및 성도 모임)는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근교 '청산가든'에서 부부동반 19명(부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겸한 율례회를 열었다. 윤승근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9월1일 오후 5시부터 금정산 야간산행 실시(지하철 온천역 집합~남문~북문~지하철 범어사역 해산) △9월 10일 오후 7시 9월정례회(신우회 사무실) △내년 2월 9일~18일 성지순례 △오는 11월 정례회 때 이재철 목사 초청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켰다(사회 강순석 총무).

부부노래경연·족구·등산으로 '신바람' 제21회 수련회

제21회동기회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 16일~17일 이틀 간 부산 수영구 남천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부부동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련회 첫 날인 16일 7시에 열린 전야제에서 오거돈 동기회장(부산시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21회의 잠재력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초빙된 조대제 본부동창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격려사를 통해 "제21회가 부부동반 수련회를 통해 창출하게 될 응집력은 본부동창회의 조직 활성화에 직결되는 만큼 즐겁고 유익한 행사가 되게끔 열정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본부회장은 오 동기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집행부에서 제공한 티셔츠를 입고 분임별로 모여 앉아 장기자랑과 부인노래경연(대상 김정애씨-송재식 동문 부인), 바둑대회 등 갖가지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응집력을 과시했다.



제21회 동문-가족 80여 명이 조대제 본부동창회 회장을 특별초청한 가운데 '여름수련회'를 개최, 화합과 결속을 확인했다. 사진은 수련회 전야제.

둘째 날인 17일에는 오전 6시30분 황령산 봉수대 등산(100분 소요)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족구대회를 벌였고, 황령산 입구 '진고개가든'에서 점심식사를 겸한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동기회 집행부=등산용 티셔츠(200만원 상당)
▷채경석(20회)=오복식품 간장 등 상품(30만원 상당)
▷정익주=냉장고 탈취기 등(50만원 상당)
▷이문수=유진주유소 유류권
▷신우회=전기스탠드(30만원 상당)
▷이석조(29회·관포Hits 운영)=상품권(30만원 상당).

울산등대회 폭 넓은 활동

월 1회 가족유대-정보교류 모임·포항과 합동회 추진

울산지역동창회의 '울산등대회'는 역내 해운 항만 수산 등 관련 동문들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 등을 위해 폭 넓은 활동을 펴고 있다.

조광수 회장(13회·대한해사검정 전무이사)이 이끄는 집행부는 매월 한 차례 소속 동문들을 초대, 우정을 나누면서 관련 산업의

동향과 정보 등을 격의 없이 교환한다.

특히 울산등대회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가족동반 송년회 및 신년회를 비롯,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 해운 항만 수산 등 관련 동문들과도 유대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열리는 정례회에 초청,

합동연합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등대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조광수
▷총무=이세환(29회·협운해운소장)
▷이사=김한성(20회·SK해운SBM팀장)·이민성(22회·빅토리해운 사장)·허용수(23회·청해산업 사장)·김종호(26회·우주검수 부장)·이영세(29회·SK기술설비팀장).

제15회동기회 직능별 활동

홍규 전 동기회장과 최광렬 동문이 각각 금일봉을 쾌척.

10월초 경부3·8 단합회 △3-8회(회장 최병우)=지난 7월 1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장춘방'에서 41차 율례회.

특히 이날 모임은 '오는 10월 6~7일 이틀 간 대전에서 경부합동 3-8회 단합회를 개최한다'는 의제를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번 행사에는 양응우 은사를 모시기로 했고 현재 부산서는 12명이 참석을 통보.

3-6반장회 창립총회 △3-6회(반장 임상택)=지난 7월 18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장 '금문'에

서 3-6반장회 창립총회를 개최. 강민조 등 6명 참석. 반장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고 반장에 임상택 동문을 선임. 노래방에서 반장회 출범 기념 뒤풀이.

보신탕에 폭탄주 파티 △의약회(회장 김중광)=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국제시장 내 '장터국밥집'에서 정례회 열고 보신탕 파티. 정광홍 등 12명 참석.

특히 정창환 동기회장과 조일량 총무가 참석해 금일봉을 격려금으로 헌친. 뒤풀이는 노래방에서 폭탄주잔치.

은정집에서 정례회 개최 △이화회(회장 이추남)=지난 7월 10일 부산 동래구 장전동 '은정집'에서 정례회. 김장길 동문 등 9명 참석.

재경경팔회 가을모임

재경경팔회(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전영배)는 9월 들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증막더위'에 지칠대로 지쳐 입맛마저 잃었던 것.

103회 대회 9월6일 티업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8월행사인 제103회 대회를 무더위 탓으로 9월 6일로 연기, 6개 팀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안성C.C에서 티업에 들어가 평소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이유환 8월대회 우승

바둑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8월 4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8월정례회를 열었다.

대국 결과 이유환 회장이 제일 먼저 도착한 '모범생' 실력을 발휘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 회장 뒤를 이어 신현주 전영배 김진석 이창근 이종수 강상태 조석제 윤태영 동문이 차례로 착석했다.

경열회 각 친목회 '9월수업' 돌입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회장 서진홍) 각 친목회가 일제히 '9월 수업'에 들어가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간표에 따르면 안산화요회는 지난 11일 낮12시 안산중앙역 앞 '다릿목 주어탕'에서, 강북화요회는 지난 4일 낮 12시 중앙극장 옆 '평래옥'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여름 한철 불벌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켰다.

여의도화요회는 오는 18일 낮 12시 '옛골'에서, 강남화요회는 25일 낮 12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각각 재회해 우정을 확인하게 된다.

사나조아동산회는 23일 북한산 등산을 한다. 회원은 오전 10시 구기동 이북5도청 앞으로 나오면 된다.

골프동호인 모임인 경록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 자유C.C에서 '가마솥더위'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라운딩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한여름 신불평원은 절경 중 절경"

강 봉 호

이철산우회 130차 산행기

우리 '이철산우회'는 지난 8월 19일 신불산(배내골 청수산장~청수좌골~신불산~백련암)에서 제130차 정기산행을 실시했다. 장기남 산우회장을 비롯, 강봉호 강태영 박찬석 윤지한 이석진 이인규 이종찬 이태주 조인용 황호경 동문 등 11명이 참가했다. 맘을 억수 같이 쏟아냈다. 집결 장소인 하단 세양병원 앞으로 가기 위해 240번 버스를 타

고 눈을 잠시 부치는데, 황호경 조인용이 승차한다.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잠시 후 평소 자주 이용한 승합차 운전사가 반가운 얼굴로 나타난다. 9시10분, 11명을 태우고 배내골로 출발한다.

원동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운전기사가 배내골 가는 새로운 길로 안내한다. 양산의 신불산공원 묘지로 난 새 길을 따라 가니 지름길이다. 드라이브 코스다. 환상적이라 모두들 와이프에게 구경시켜줄 것을 다짐한다.

10시40분, 청수골산장에 도착, 청수좌골로 향한다. 오라가락하



는 비를 맞으며 10분쯤 오르막을 치니 땀이 솟기 시작한다. 모두들 헉헉거린다.

어젯밤 대취로 늦게 귀가한 박찬석이 힘들어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오랜만에

참석한 황호경이 준비해온 포도를 먹으니 피로가 싹 가신다. 찬석이 늦게 오면서 냄새를 맡았는지 오자마자 포도를 찾는다.

능선에 올라서서 신불평원을 바라보니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절경에 새삼 반한다. 정상으로

가는 도중 뷔페식 점심식사를 한다.

'김형곤테이프이야기'를 들려주니 오랜만에 배꼽을 쾅다.

정상 도착 후 예정대로 파래소로 하산하려고 길을 찾는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해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하게 백련암으로 하산길을 잡는다. 지루한 하산길을 내려오다가 노천욕을 즐긴다.

평소산행보다 1시간 더 걸린 '죽을 고생'의 산행이지만 뒷맛은 개운하고 즐겁다. 이제는 체력이 뒷받침하는지 모두들 힘이 남아돈다.

하단에 있는 김경진 총무에게 연락하니 저녁식사 장소를 안내해준다.

모교 4년 만에 '정상 행가래'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 결승전 재경기서 부산고 제압

모교의 제53회 화랑대기 우승은 4년 만에 탈환한 대회 통산 7번째 '전국최강자고지'였고 국내외 용마가족에게 다시 안긴 감격의 영광이었다.

모교는 지난 7월 22일 부산 구덕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폐막된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재경기에서 8회말에 폭발한 유격수 유재원의 결승 2점 홈런으로 숙적 부산고를 8-6으로 누르고 패권을 쥔채했다.

**대회 통산 7번째 영광
39년만에 분패의 한 풀어
8회말 2점홈런 '황금패'**

'역점-동점-재역전...'의 피를 말리는 명승부는 화랑대기 53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재경기'를 연출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모교는 전날인 21일 결승전에서 부산고를 맞아 12회 연장 끝에 9-9 무승부를 기록하는 4시간58분간의 혈전을 벌였다.

이로써 모교는 22일 펼쳐진 대회 시상식 최초로 '결승전 재경기'에

서 정상에 우뚝 서 지난 62년 결승전에서 부산고에 1-2로 분패했던 한을 39년 만에 씻었고, 정연회 감독은 당시 선수로서 준우승에 그친 분을 삭였다.

이날 모교는 1회말 선취점을 올렸으나 3회초에 3점을 내줘 2-3 역전을 당했고 3회말 동점을 만들었으나, 4. 7회에 각 1점씩 내줘 3-5로 시달렸다.

전열을 가다듬은 모교는 7회말

4안타를 퍼부어 3점을 빼내 6-5로 역전시켰으나 8회초 적시타에 놀려 1점을 내줘 6-6 원점으로 돌아왔다.

'승리의 여신'은 8회말 모교에 미소를 보였다. 선두타자 구희진이 몸에 맞는 볼로 1루에 나간 뒤 유격수 유재원이 우측 펜스를 넘기는 운명의 110m 짜리 결승 홈런을 날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년 만에 '전국최강자'에 등극한 모교 선수들이 우승기 봉정식에서 전교생의 박수를 받고 있다.

야구지원 앞장 김학현 모교운영위원장 "화랑대기 우승은 용마가족 성원 결과 결승전 재경기가 피를 말리더군요"

클로즈업

"모교 야구의 '전국제패'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늦둥이 외동(주한·2학년)의 모교 재학이 불씨로 타오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최(?)로 모교 교육환경 개선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학현 동문(15회·사진)은 요즘 축하인사를 받느라 바쁘다.

주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올해 '화랑대기 우승' 쟁취에는 김 동문의 열정과 집념과 헌신 등 물심양면의 지원이 활력소로 기여했기 때문. 말 그대로 '혼신

의 노력'을 뒤에서 쏟았다. 게다가 동기생들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고부자경동문회'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재경기로 패권을 가려야 했던 두 차례 결승전은 정말 피를 말리더군요. 이번 우승은 정연회 감독(17회)의 뛰어난 작전과 선수들의 불타는 필승의지와 조정문 부장(38회)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동기생들을 비롯한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성원 등이 '하나'로 응집돼 일궈낸 영광입니다.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김 동문은 이번 대회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장에 나와 속을 태우는 바람에 입술이 부르토고 얼굴이 검게 타버렸다.



제15회, 야구후원금 쾌척

정창환 동기회장 100만원·손부홍 30만원
한해수 정기문 유병용 안경숙 김승일 100만원 조성

"우리도 나서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제15회동기회 부산-서울 동문들은 모교가 이번에 화랑대기 우승을 쟁취하는 데 김학현 동문의 뒷바라지가 큰 역할을 했으며, 평소 모교 야구 중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저기서 모교 야구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창환 동기회장(변호사)은 지난 7월 30일 오후 강무상 김판열 총무와 함께 모교를 방문, 김성찬 교장(12회·지난 8월 말 정년퇴임)에게 우승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 지난 7월 26일 모교에서 거행된 우승기 봉정식에 참석한 한해수 동문(본부부회장) 등 5명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격려금 100만

원(한해수 정기문 각 30만원·유병용 20만원·안경숙 김승일 각 10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한편 손부홍 동기회관운영위원장은 최근 본부동창회 사무국을 방문, 모교야구부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써달라며 30만원을 기탁했다.

**이승무(26회) 부교육감
50만원 기탁**

봉황대기 야구 격려

최근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승무 동문(26회)은 지난 8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모교 야구부 선수들을 위해 써 달라며 격려금 50만원을 쾌척했다.

■우승 이끈 정연회 감독 "선수들 '정상집념' 결실"

"피를 말리는 경기였다.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선수들의 집념이 일궈낸 결실이다."

정연회 감독(17회·사진)은 8강전(천안북일고)과 4강전(대전고)을 1점차로 이겼고, 결승 1차전(부산고)을 12회 무승부로 끝내는 등 연일 곤욕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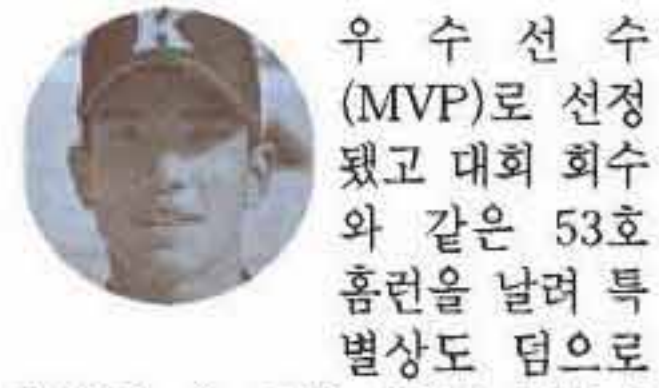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선수들이 잘 풀어나갔으며 공로를 선수들에게 돌렸다.

그는 한 달 후면 정년퇴임하는 선배인 김성찬 교장(12회)선생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퇴임선물'을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MVP오른 유재원 군 "3년 기다린 '우승' 기쁨"

"3년 동안 기다린 '전국제패'의 꿈을 이제서 이뤄 한없이 기쁘다."

결승전 재경기 8회말에서 2점 홈런을 날려 모교에 우승을 안긴 유재원 군(3학년·유격수)은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밝혔다. 유 군은 이 같은 공로로 최



우수 선수(MVP)로 선정됐고 대회 최우수와 같은 53호 홈런을 날려 특별상도 덤으로 받았다. 유 군은 5경기 모두 3번타자로, 21타수 6안타 3홈런 10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홈런 3개는 모두 경기 막판 동점(2개)과 결승 홈런이다.

제15회 동기회관운영위 신임위원 상견례·회의

제15회동기회 동기회관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올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손부홍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해 열렸다.

특히 이날은 모교가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부산고를 물리치고 우승하는 경사까지 겹쳤는데, 이번 대회에서 시종 헌신한 김학현 전 회장(경남고 운영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해 박수로 격려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손 위원장이 주재한 뒤풀이에서 정창환 동기회장과 김학현 경남고 운영위원장의 특찬금으로 넉넉한 술잔을 나눴다.

어디서 무엇을

金炯辰(28회)=울산 프라우메디 병원 기획이사
金克洙(28회)=대림산업(주) 부장. 울산북구청사 완공하고 본사로 귀사

제 1 회
鄭銅植=재경동창회 명예회장. 8월 29일 부인 별세

제 5 회

尙基中=충무치과의원 원장. 8월 26일 모친 별세. 부산시 충무동1가 15-5. 051-254-7810

제 6 회

鄭昭永=본부동창회 고문. (개원) 유니온치과 대표 병원장. 부산 중구 동광동1가 15 한국투자신탁증권 3~5층. 051-257-2875.

제 7 회

李丙稷=5월 12일 용인 아미원에서 아들 민석군 야외결혼식
이우호=5월 15일 일본경도 거주 중 3일간 모국 방문
徐元培=6월 13일 별세
朴煥植=6월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딸 현지양 결혼
朴百洙=7월 1일 래왕웨딩하우스에서 장남 결혼

金鍾基=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0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 903동 801호. 031-719-3248

金容佑=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 서보빌딩 5층. 02-521-2005. 017-202-7915

蘇鎭殷=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34 백마마을 한양아파트 404동 405호. 031-902-4793

林彩植=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4-2 화성아파트 105동 403호. 031-319-8549

제 8 회

李昌圭=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의외관리론을 맡아 9

아틀란타지역동창회

李時澤(17회)=20여년간 휴스턴 동문회에서 지내오다 1999년에 아틀란타로 이사. (주소)6087 Buford Hwy., Doraville, CA 30340. (전화)770-248-9510. (팩스)770-248-9511.

E-mail: ktimes@mindspring.com

盧在胤(17회)=휴스턴 텍사스 MD ANDERSON HOSPITAL에서 수술병리과 재직 중 9월 15일 서울 중앙병원병리과장으로 이동

權和英(17회)=엔지니어. 지난 5월 아틀란타에서 디트로이트(미시칸주)로 이주. (전화)248-465-1063

李憲永(17회)=남가주 LA인근 몬

트리오에서 1월부터 일본인 상대 선교회인 일본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고 있음. 오는 10월 20일 딸(테레사)이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인 신랑을 맞아 결혼. (전화)909-483-0820. (교회)909-985-9624

울산지역동창회

울산지역동창회사무실 이전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85-8 남해사 주유소 2층. 전화: 052-265-9242. 팩스: 052-265-9247

李文熙(23회)=울산 남구 삼산동 1574-2 최첨단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여성전문병원 신축

成昶出(25회)=울산중부경찰서장에서 6개월간 연수교육을 위해 경찰청본청으로 전보발령

'처녀출전' 14회산꾼들 억산서 혼쫓나

헉헉거리며 죽을 고생하자 13회 선배들이 앞뒤서 부축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의 용마산악회 제7차 정기산행대회가 무더위가 한풀 꺾인 지난 8월 26일 경남 밀양 근교 억산(944m)에서 제9회부터 제34회까지 동문 76명과 가족 5명 등 모두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동대 용마산악회(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이 리드한 이날 행사는 제14, 28회동기회가

본부 용마산악회 7차 산행대회 동문·가족 81명 참가 "대성황" 제28회도 처음 나와 큰 기여

처음으로 참여해 '대성황을 이룬 산행'에 한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마산악회 활성화의 촉진제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마산우들은 오기현 산행대장(20회)의 자상한 리드에 따라 경남 밀양 근교 석골사 입구에서 인원 파악과 장비 점검을 마친 후 산행에 들어갔다(10:00).

일행은 산행 시작 20분 만에 운

문산과 이날 목적산인 억산으로 가는 갈림길에 닿아(10:20)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2시간10분 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억산 정상에 올랐다(12:30).

억산 정상에서 동기회별로 오순도순 점심식사를 한 동문-가족들은 오후 1시30분까지 푹 쉬다가 하산길에 들어가 억산기도원(14:40)~봉의저수지(16:20)~인곡 마을회관 앞까지(16:30) 내려와 산행을 마쳤다.

특히 이날 '처녀산행'에 나선 제14회동기회 산우들은 초반에 의기양양하더니만 오르막이 계속 되자 찢찢했고, 내려갈 때도 헉헉 짊에 자주 미끄러지는 등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헉헉거리는 애처로움(?)을 보였다.

그래서 산에서 더욱 노익장을 과시하는 제13회 선배들이 앞뒤에서 알뜰히 부축해주는 우애를 발휘해 주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억산 정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용마산악회 산우들.

일오산우회, 부부동반 29명 금정산에... 산행후 회식

일오산우회는 지난 6월 17일 금정산에서 동문-가족 29명(부인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행대회를 열고 심신을 단련했다. 장중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지난해 경부합동산행대회 이후 최다인원으로 반가움과 즐거움이

넘쳤다. 한해수 산행대장의 노련한 리드로 남녀 산꾼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열행은 한 대장이 케첩한 특찬금(20만원)으로 동래 온천장 '명성곰탕집'과 '태평양노래방'에서 회식을 해 상쾌한 하루가 됐다.

제29회 동기회장배 바둑대회... 우승 서석철·배현호

제29회동기회는 지난 6월 17일 부산 연산동 '명지기원'에서 바둑애호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를 열었다. 정유성 동기회장(신진택시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막강한 기력을 보유한 제29회동기회는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저력을 과시할 수 있게끔 실력 배양에 더욱 노력하자"며 "바둑대회가 동기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동문 모두가 성원을 쏟아"고 말했다.

이기섭 대회집행위원장(프로 6단)의 대회규정 설명에 이어 진행된 대국에서 A조는 우승 서석철·준우승 강성훈, B조는 우승 배현호·준우승 박광우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대회에 참관했던 모든 동문은 시상식에 이어 관포Hits(이석조 동문 운영)에서 열린 단합회에서 우정의 술잔을 나누면서 근래 잘 보이지 않는 이 친구 저 친구의 소식을 묻고 또 전해주는 등 정담을 나눴다.

일육산악회 신어산 등정 8월 행사맨 닭찜 파티

제16회동기회의 일육산악회는 지난 9월 16일 경남 김해시 근교 신어산(630m)에 올랐다. 이제 계절도 등산하기에 좋은 가을로 접어들었기에 산꾼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9월 정기산행도 김길정 회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서태복 산행대장이 리드했다.

한편 일육산악회는 지난 8월 정기산행으로 한우산을 등정했다. 참가자 중 김길정 김미륵 임종원 이점일 강종국 동문은 부인을 동반해 칭찬(?)을 받았고 김인국 서태복 손송방 조재중 최정일 동문은 배낭 하나만 달랑 지고 나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일행은 귀가길에 부인들의 앙칼진 협박(?)에 못견디 닭찜파티와 노래판을 벌여야 했다.

재경동창회 2001년판 회원명부 발간

재경동창회(회장 이규만·12회·KML 대표이사)는 2년마다 펴내는 서울과 수도권 동문들의 주소록인 '2001년판 회원명부'를 최근 발간했다(사진 명부 표지).

장 및 총무 동호인회 임원, 본부동창회 임원 동기회장 및 총무·지역회 임원 등 명단, 미국 뉴욕 LA 등 해외지역 동문 주소, 직업별 명단, 동문이름 찾기, 동문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했다.



이번 회원명부는 제1~47회 동문들의 직장 및 자택주소가 정리돼 실렸고, 2년 간의 각종 행사사화보로 조명됐다.

특히 표지와 동기회별 첫 장마다 최근의 모교 발전상을 사진으로 처리, '마음의 고향'을 추억하게 했다.

부록으로 재경 은사 주소록, 재경동창회 임원 이사 동기회

이규만 재경동창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2001년판 회원명부의 데이터는 2000년 6월에 새롭게 정비한 '회원관리프로그램'에서 직접 파일 전환 작업을 했다"며 "이번 명부가 동문 상호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친목도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립 9주년 기념 금정산 등반대회

일삼산우회 정기총회 공한국회장 등 집행부 유임

일삼산우회(제13회동기회 산꾼 모임) 창립 9주년기념 등산대회가 지난 8월 12일 금정산에서 20여 명의 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해 열렸다.

공한국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영원한 산행대장'인 제병민 동문(본부 용마산악회 부회장)의 리드로 범어사 앞~북문~동문~

온천장 코스에서 펼쳐졌다. 공 회장은 일행과 함께 동문에서 개인별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총회를 개최, 그간 산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손영석 조달곤 제병민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총회는 임원개선을 통해 집행부(회장 공한국·부회장 정영화·산행대장 제병민·감사 김신부·총무 이규채)를 재선임, 전원 유임시켰다.

격월로 정례회·홈커밍기금 조성 제37회 임시총회 개최...신임회장 김정수



제37회동기회는 지난 6월 22일 오후 8시 부산 사상구 감전동 E마트 뒤쪽 '마루' (박철우 동문 운영)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정수 동문(미래산업 대표·사진)을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기영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우 신임총무의 사회로 진행됐고,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이 참석해 시종 열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총회는 주요의안인 △화합과 결속을 위해 정례 모임 두 달마다 개최(날짜=해당되는 달 10일·장소=동문이 운영하는 '마루(박철우)'와 '오죽향(김원호)'을 원칙으로 함 △홈커밍데이행사 기금 적립(격월 모임 때마다 1만원씩 예치) △회원 회비 규모 조율(정기회비=각 1만원·이사 연회비=각 30만원~30명 예정)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인사말씀과 장의 안내

경남중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구 서대신동에서 25년 동안 장의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이에 크게 힘입어 이번에 장의차 및 사체 운구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장의행사 대행 전문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불러야 할 급한 일이 발생하면 주·야 불문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으므로 즉시 응하겠습니다.

동문들의 가정에 장의가 발생하면 내 부모 내 형제를 대하듯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첫째: 자택에서 임종했을 경우 유족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즉각 원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시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사체 운구용 차량 다수 보유).

둘째: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 병원 장의사들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이 사망 즉시 영안실에 내려가지 말고 연락주시면 유족이 원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 편안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의행사가 시작되면 초혼 수시 빈소 설치 소렴 대렴 입관 성복 천구 출상은 물론이고 장지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장의 비품을 속임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묘지 앞선(공원묘지)·매·화장 신고·택일·이장 개장 후 화장·진단서 발부 등 대행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김광박(14회)
011-552-4903, 051-255-4903

강 창 수 (21회)